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정원재·서준희·박지우·정완규 물망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공고-최종후보자-선임 3단계
정원재, 우리은행 '영업통' 유명
박지우, KB캐피탈 대표 '3연임'
서준희, 핀테크분야 이해도 높아
정완규, 유일 관료출신 소통 기대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서준희 BC카드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사장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가 윤석열정부의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다음 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차기 회장 물망에 오른 사람은 모두 4명이다. 민간 출신으로 정원재 전 우리카드 대표, 서준희 전 BC카드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등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다. 관료 출신으로는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은 1959년생으로 천안상고를 졸업했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 입사 후 40년 이상 우리금융그룹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은행 재직시절부터 업계 '영업통'으로 유명했다. 우리카드 사장 시절에는 '카드의 정석' 시리즈를 선보이며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한 여신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꼽힌다"라고 평가했다.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또한 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957년생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핀란드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KB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세 차례나 연임했다. 'KB 차차차' 성공 등 실무와 플랫폼

개발에 익숙한 인물이란 평가다. 서준희 전 BC카드 대표도 차기 협회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1954년생으로 경남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BC카드에서 결제시장이 모바일, 웨어러블 시장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하고 BC페이(BC Pay)와 클럽 등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업계에서는 핀테크 분야의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특

히 사장 시절 비씨카드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을 이끌어 낸 이력이 있다.

관료 출신인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1963년생이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유일한 관료 출신이어서 금융당국과 협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여신협회장 선임은 회추위 구성 이후 '공고-최종후보자명단 작성-선임' 등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린 후 지원자를 받는다. 이후 회추위에서 1명으로 후보자를 추린 뒤 여신협회 정회원사에서 청문회를 거친 뒤 당선되는 절차다.

회추위는 전업카드사 7곳과 캐피탈사 7곳에 감사 1명으로 현재 감사는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美 통합법인, 녹색물류 ESG경영 호평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美전문지 '녹색공급망 파트너' 선정
지속가능 물류 공급망 모범적 운영

CJ대한통운 미국 통합법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CJ Logistics America)가 ESG 경영을 통해 미국 물류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미국 물류 전문지 인바운드 로지스틱스(Inbound Logistics)에서 발표한 '2022 녹색 공급망 파트너(2022 Green Supply Chain Partner)'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는 매년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 물류를 몸소 실천하는 기업 75곳을 녹색 공급망 파트너로 선정해 'G75'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이번 선정결과는 ▲측정 가능한 녹색 성과(Measurable Green Results) ▲지속가능한 혁신(Sustainability Innovation)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업계 인식(Industry Recognition) 등 4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직원들이 물류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인바운드 로지스틱스의 에디터 펠레시아 스트라튼은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를 포함한 2022년 수상자 모두 지속가능한 물류 공급망 운영을 위한 약속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말했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는 친환경 물류를 실천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있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기 ▲가스 ▲물 ▲천연가스 ▲재활용 ▲폐기물 등 6가지 항목을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연간 목표를 산정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물류네트워크 리모델링 및 최적화를 통해 화물차의 전체 이동거리를 단축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중이다. 이밖에도 고효율 조명, 태양광 패널, 친환경 포장 소재 등을 물류센터에 적극 도입해 녹색 물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관계자는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녹색물류를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발굴하는 지속가능경영 프로젝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모빌리티-LG전자 자율주행 로봇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손잡아

LG전자가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등 모빌리티 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을 잡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LG전자는 최근 서울 서초구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 및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LG전자만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접목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고객 경험 기반의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사는 올해 초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의 첫 번째 테크 컨퍼런스 'NEMO 2022'에서의 LG옴니파트(LG OMNIPOD) 전시를 시작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협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 모델 발굴 ▲차량 내 이용자경험(In-Car UX) 실증 환경 구축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검증 및 고객 경험 발굴 ▲보행자 안전을 위한 'Soft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기술 활성화 ▲모빌리티와 가전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서비스 발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통한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다.

특히,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실내·외 로봇 배송 서비스에 대한 PoC(사업화 검증)의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관계 플랫폼과 LG전자의 로봇 플랫폼을 결합해 건물 내 사물 이동에 대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향후에는 서로 다른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추가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르노코리아 'XM3 하이브리드' 글로벌서 가치 인정

英 '최고 하이브리드' 선정 등 유럽시장서 연이은 호평 받아

올 하반기 국내 출시하는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XM3(수출명 르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유럽 시장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고 있는 XM3가 영국 소비자들이 뽑은 2022년 최고의 하이브리드차에도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올 가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XM3 하이브리드는 영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오토 트레이더가 6월 발표한 2022년 뉴 카 어워즈의 '최고의 하이브리드차' 부문에서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렉서스 RX 450h 등의 경쟁차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XM3

이번 수상은 실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각자 본인 차량 이용 경험을 토대로 차량 디자인, 성능, 신뢰성, 운영 비용 등 16가지 항목을 직접 평가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전의 전문가 평가 기반 수상과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오토 트레이더의

영국 '최고 하이브리드' 선정 등 유럽시장서 연이은 호평 받아

2022년 뉴 카 어워즈는 총 22개 부문에서 수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최고의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19개 부문이 영국의 신차 구매 소비자 15만65백 명의 평가로 결정되었다.

XM3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번 평가에서 이 차량의 출력, 신뢰성, 안전성, 승차감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쿠파 스타일 SUV로 대표되는 XM3의 세련된 외관 디자인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서 XM3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스웨덴 유력 자동차 전문지 테크니켄스 바를드가 진행한 하이브리드 모델 종합 평가에서도 아우디 Q5 스포트백 TFSI(68점), 볼보 V60 B4(68점), 폭스바겐 골프1.0(65점),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64점) 등을 누르고 총 69점으로 최고 점수를 얻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